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현대중공업	8,576.5	16.1	124,000	29	11.2	-0.8	29.2	864	41.4	0.6
현대중공업지주	5,936.5	20.7	364,500	20	-2.8	-6.8	-4.3	4.9	4.1	0.6
현대엘렉트릭	624.6	5.2	61,200	22	-6.4	-31.5	-46.3	5.8	5.1	0.5
현대건설기계	1,130.8	9.0	114,500	0.0	-14.6	-30.6	-32.2	7.3	5.4	0.8
삼성중공업	4,706.1	17.8	7,470	0.7	13.4	-2.1	15.5	47.1	23.4	0.5
대우조선해양	3,205.5	7.7	29,900	22	12.6	10.3	115.1	7.0	19.8	0.9
현대미포조선	1,944.0	10.0	97,200	0.4	22	5.0	23.5	21.0	15.1	0.7
한진중공업	275.7	7.0	2,600	12	-6.1	-22.6	-21.5	52.3	13.0	0.4
현대엘리베이터	2,539.3	22.0	93,500	-0.4	3.1	-23.7	71.9	16.5	16.1	2.3
두산밥캣	3,568.9	26.0	35,600	-0.1	5.6	5.1	0.7	13.0	12.3	1.0
현대로템	2,367.3	1.8	27,850	-0.4	5.1	-26.6	48.5	35.9	24.5	1.6
하이록코리아	304.3	48.8	22,350	-0.4	-7.6	-22.9	-0.7	10.1	9.3	0.9
성광밴드	324.6	16.2	11,350	0.0	23	-12.7	13.7	1,003.3	40.7	0.7
태apan	333.9	13.1	12,600	0.8	12	-6.3	4.6	752	36.7	0.8
두산중공업	1,710.3	14.8	14,600	1.4	-1.4	-23.0	-4.9	24.1	8.8	0.5
두산인프라코어	1,929.6	19.6	9,270	0.1	-7.8	-12.5	6.7	6.1	5.6	1.0
두산엔진	132.8	4.1	4,030	1.5	10.6	-19.2	56.9	-15.5	-20.5	N/A
한국항공우주산업	4,128.1	14.5	42,350	1.2	19.3	-11.2	-10.7	35.8	26.4	3.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27.0	11.3	25,500	1.4	12.6	-19.9	-28.3	33.5	17.7	0.6
LIG넥스원	753.5	9.1	34,250	1.8	0.3	-35.3	-42.7	N/A	N/A	N/A
태昂	295.1	4.8	14,750	-0.7	-2.0	-20.1	-23.8	N/A	N/A	N/A
동성화이텍	204.0	5.4	7,560	-0.3	16.7	16.8	49.7	-38.8	20.3	2.6
한국카본	274.3	13.6	6,240	0.2	7.6	-0.3	16.4	72.4	19.2	0.9
									0.8	1.2
										4.5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Posco lines up rolling plan for dual-fuel capesize bulkers

포스코는 선대 개편을 위해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하는 capesize급 벌크선 20 척을 dual-fuel 옵션으로 장착된 LNG추진선으로 발주할 전망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매년 2척씩 발주할 전망임. 포스코는 H-Line, 팬오션, 폴리아 스쉬핑 등 선사와 장기운송계약(COA)를 체결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Sovcomflot eyes Arctic transit for first LNG-fuelled aframax tanker

러시아 Sovcomflot은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첫 LNG추진 aframax 탱커를 인도 받기 위해 노력 중임. 10월 1일에 인도 예정인 선박에 맞춰, 항해 전 북극항로의 기후와 항로를 세크할 예정임. 세크 후 북극항로 운항을 당국에 신청할 계획임. 또 한국가스공사의 통영 LNG시설에서 병거링하기 위해 협의 중. (TradeWinds)

DNV GL, Dalian plan massive LNG-powered boxship

DNV GL과 중국 Dalian 조선소(DSIC)는 LNG를 추진연료로 사용하는 2.3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공동개발에 착수한다고 알려짐. 해당 컨테이너선은 세계 최대 규모로 예상됨. 중국과 유럽에 LNG벙커링 시설 확장 기조에 맞춰, LNG는 낮은 비용과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전망임. (TradeWinds)

현대중 독자개발 힘센엔진 여객선에 첫 탑재..."수출길 열려"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선박추진용 엔진 2기를 최근 현대미포조선이 위동항 운에서 수주한 3.3만톤급 RO-PAK(여객, 화물 겸용선)에 공급했다고 알려짐. 엔진은 중형 디젤엔진인 '힘센엔진' 중 최대 출력 제품임. 여객선 추진엔진은 전세 계약에서 단 3개업체만 생산할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Uniper on hunt for pair of LNG newbuildings

글로벌 Commodity 트레이더사 Uniper는 LNG선 발주를 위해 선주를 선택하는 중이며, 9월 25일까지 1+1척 발주를 요구했다고 알려짐. 용선 계약 기간은 7년으로 추가 옵션 기간이 있을 전망임. 과거 Uniper는 일본 MOL과 20년 용선 계약을 맺고, 지난달 대우조선에서 LNG선을 인도받았다고 알려짐. (TradeWinds)

Samsung cuts first steel for Coral South FLNG

삼성중공업은 Eni가 발주한 Coral South FLNG에 대해 Steel-cutting(강재절단) 행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짐. 해당 FLNG는 모잠비크에 위치할 계획임. Topside 부문 EPC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관리는 TechnipFMC와 JGC가 할 계획. 삼성중공업은 Hull에 대한 EPC와 Topside 결합을 맡을 예정임. (Upstream)

BV, LNG 찬양

프랑스 선급 BV에 따르면 LNG가 선박 연료로 최상의 대안이 될 전망임. IMO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50% 절감 계획에 대해, LNG는 탄소는 제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소로 갈 전망이지만, LNG는 기존 연료와 30~50년 후 수소 연료를 이어주는 중간 연료로 전망함. (선박뉴스)

Newbuilding orders top \$40bn in year-to-date

Crucial Perspective에 따르면 올해 현 시점까지 총 623척의 선박이 발주되었고, 발주 규모로 400억달러로 예상됨. 그 중 크루즈, LNG선, 탱커가 전체 발주의 절반을 차지함. 전체에서 크루즈선은 19%, LNG선은 18%, 탱커는 17% 비중임.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LNG선 부문에서 51%를 점유할 전망임.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